

# 서울市 一部地域 老人亭 老人의 糖尿病 出現程度와 糖尿病에 對한 知識 및 疾病管理 狀態에 關한 研究

盧 國 姬

## 〈目 次〉

### I. 序 論

- A. 研究問題의 提起
- B. 研究目的
- C. 研究의 制限點
- D. 文獻考察

### II. 研究方法

- A. 研究方法, 研究對象 및 調査期間
- B. 資料分析方法

### III. 調査結果

- A. 調査老人의 一般의 特性
- B. 調査老人의 糖尿病 罹患 程度
  - 1. 糖尿病에 對한 自覺症狀 出現 程度
  - 2. 糖尿病 罹患 診斷 經驗 與否
    - 1) 本人의 糖尿病 認識 程度
    - 2) 性別 糖尿病 認識 程度
  - 3. 尿糖 檢査 結果
    - 1) 尿糖 陽性率

- 2) 性別 尿糖陽性率

- 4. 尿糖 檢査 結果와 糖尿病 認識 與否와 의 關係

### C.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對한 知識 程度

- 1. 糖尿病에 對한 知識 程度
- 2. 本人의 糖尿病 認識 與否別 糖尿病에 對한 知識 程度
- 3. 尿糖 檢出 有無別 糖尿病에 對한 知識 程度
- 4. 尿糖檢出 및 糖尿病 認識 有無群別 糖尿病에 對한 知識 程度

### D. 糖尿病에 對한 疾病管理 狀態

- 1. 疾病管理 實踐 程度

### IV. 結 論

### V. 參 考 文 獻

英 文 抄 錄

## I. 序 論

### A. 研究問題의 提起

産業이 發達되고 科學이 進歩됨에 따라 現代人의 平均壽命은 漸漸 늘어가고 있다. 平均壽命이늘어감에 따라 老齡 人口가 增加하게 되었고 老齡化는 老人問題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중에서 老人 保健도 全世界의 으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例外는 아니어서 韓國人口保健研究院<sup>1)</sup>

에서 나온 資料를 보면 우리나라의 平均壽命은 1960年代 52.4歲, 1970年代 63.3歲, 1980年代 65.9歲이고 1985年度에는 67.8歲로 記錄되어 있으며 1990年代에는 70.4歲 2000年代에는 72.8歲로 展望되어 우리나라의 平均壽命도 漸增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우리나라 老齡人口의 構成化는 朴<sup>2)</sup>의 研究에 의하면 1960年代에는 우리나라 全体人口 2,499萬名中에서 60歲이상 老齡人口의 構成比는 5.5%인 138萬名이었으나 1984年度에는 總人口 4,058萬名 中

에서 60歲以上 老齡人口의 構成比는 6.4%인 266萬名이어서 아직은 老齡人口가 全体人口의 10%를 넘는 先進國水準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尹<sup>3)</sup>의 研究에 의하면 60年代 우리나라의 65歲以上 老齡人口의 年平均 增加率은 2.4%이고 이 期間中 全國人口의 年平均 增加率은 2.3%이었으며 70年代 老齡人口의 年平均 增加率은 3.4%로 全國人口의 年平均 增加率인 1.8%보다 높다고 하여서 老齡人口의 急增에 큰 關心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現代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疾病구조도 변화되어 高血壓, 糖尿病, 關節炎 等の 慢性退行性 疾患이 增加一路에 있으며 臨床에서의 研究 事例도 많이 報告되고 있는 實情이다.<sup>4)5)</sup>

그러나 地域社會, 特히 都市地域 老人을 對象으로 한 慢性退行性疾患-그中 糖尿病-에 대한 研究는 드물어서 서울시 일부지역 60歲以上 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研究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全國家의水準의 糖尿病 有病率에 대한 報告는 없으나 대체로 1~2% 程度라고 어렵잡고 있으며<sup>6)</sup> 臨床을 中心으로 한 例에서는 0.1% 程度에서 해가 지남에 따라 2.1~3.2%로 늘어가고 있으나<sup>7)</sup> 李等<sup>8)</sup>의 60歲以上 農村零細老人의 健康狀態調查에서 볼때 糖尿病 有病率은 5.5%로 報告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老人人口의 糖尿病有病率은 全体人口의 糖尿病 有病率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推定되어 老人性 糖尿病 治療가 큰 課題로서 등장 하게 되었다. 糖尿病을 治療하는 方法에는 食餌療法, 運動療法, 인슐린 療法이 있으며 治療 對象者의 身長, 體重, 糖尿病의 種類에 따라서 教育을 시키고 疾病管理를 하게하여 斷續 糖尿病에 대한 조절을 할 때 合併症없이 一生을 安全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sup>9)</sup>

따라서 ALan, L<sup>10)</sup>과 Margret M 等<sup>11)</sup>이 臨床에서의 糖尿病教育의 重要性에 대하여 報告하고 있듯이 老人性 糖尿病疾患者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老人들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과 疾病管理 狀態를 把握하여 糖尿病을 豫防, 調節 할 수 있는 能力을 키워주는 教育이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病院의 外來糖尿病 크리닉을 통하여 醫師, 看護員, 營養士等이 主軸으로 糖

尿病患者 教育과 事後管理(follow up care)를 하고 있으나 地域社會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成人病協會 等の 몇 군데에서 糖尿病教育을 시키고 있지만 糖尿病教育을 받고 있는 사람은 全國적으로 볼 때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또한 地域社會를 對象으로 集團檢診 等の 方法에 의하여 糖尿病患者를 發掘하려는 國家의 次元의 努力은 微微하며 保健政策의 一環으로서 低所得者를 優先順位로 하여 成人健康檢診이나 老人健康檢診에서 糖尿病患者를 찾아내고 糖尿病 教育을 시킨다고는 하나 全國家적으로 볼때 그 對象者는 亦是 적은 部分에 不過하다.

따라서 國家의次完에서 糖尿病患者를 發見해 내기 위하여 選別檢査等の 方法 動員이 必要하고 發見해낸 糖尿病 患者에 대하여 糖尿病에 대한 知識과 疾病管理實踐 程度를 알아내어 不足한 部分에 대한 組織的 教育이 必要하며 糖尿病에 대한 教育과 糖尿病 管理 實踐이 함께 연결될 수 있는 教育 傳達體系의 開發이 또한 必要하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에 本 研究를 실시하게 되었다.

## B. 研究의 目的

1. 서울시 一部地域 老人亭 老人의 糖尿病 罹患 程度를 本人의 糖尿病 有無에 대한 認識 與否와 尿糖 檢査 結果에 의하여 選別檢査(Screening test)를 하고 그 結果를 老人性 糖尿病罹患程度 測定時의 基礎資料로 제시한다.

2. 모든 調查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를 測定하고 또한 調查老人中에서 糖尿病이 있다고 對答한 老人의 疾病管理實踐 程度를 測定하여 그 結果를 地域社會老人들의 糖尿病教育의 必要性 查定時에 基礎資料로 제시한다.

## C.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는 調查 老人들의 糖尿病 罹患程度를 本人의 糖尿病有無에 대한 認識 與否와 尿糖檢査 結果에 의하여 選別檢査하였기 때문에 本 研究의 糖尿病罹患 程度는 確診을 받은 糖尿病 有病率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糖尿病 有病率을 내기 위해서는 臨床檢査 等の 方法에 의한 더 이상의 診斷檢査가 必要하다.

또한 本 研究는 60歲以上 老人을 對象으로 하였

기 때문에 糖尿病에 대한 知識과 疾病管理狀態에 대한 細分된 內容을 묻지 못하였다.

또한 本 研究는 江南區 一部地域 60歲以上 老人의 糖尿病罹患程度와 糖尿病에 대한 知識 및 疾病管理 狀態를 보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60歲以上 老人들을 代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研究結果는 本 研究對象에게만 適用시킬 수 있다.

#### D. 文獻考察

##### 1. 糖尿病의 種類

糖尿病에는 인슐린 依存型 糖尿病과 非인슐린 依存型 糖尿病이 있다. 인슐린 依存型 糖尿病은 血清인슐린 濃도가 낮고 胰臟인슐린 分泌機能을 반영하는 24時間 尿中 C-peptide 排泄量이 매우 낮으며 人슐린의 투여시에만 症狀의 好轉을 期待할 수 있기 때문에 人슐린의 不足으로 因하여 發生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非인슐린 依存型糖尿病은 糖尿病의 80%以上을 차지하는 것이며<sup>12)</sup>  $\beta$  세포의 缺陷 또는 人슐린 抵抗性 등으로 主張되고 있으며 이들 환자의 75%가 肥滿症을 동반하며 따라서 非인슐린 依存型 糖尿病은 食餌療法 만으로 糖尿病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3)</sup> 1985年 Laakso<sup>14)</sup> 報告에 의하면 人슐린 依存型 糖尿病은 19歲以前 發病이 63%이었고 57歲가 넘는 人슐린 依存型 糖尿病은 4% 程度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人슐린 依存型 糖尿病의 好發年齡을 19歲 以前으로 보았고, 非인슐린 依存型 糖尿病은 40歲 이전에 診斷되는 경우는 드물고, 非인슐린 依存型 糖尿病者의 過半數 이상은 64歲以後에 診斷된다고 하여서 老人性 退行性 糖尿病者에게는 非인슐린 依存型 糖尿病이 많다고 하였다.

##### 2. 糖尿病有病率

우리나라 糖尿病有病率에 關하여는 아직 廣範圍 的 調查研究는 없으나 臨床에서 實施한 糖尿病의 有病率과 農村地域, 都市地域의 有病率에 대한 報告와 老人性 糖尿病에 대한 統計資料가 있다.

###### 1) 臨床에서의 糖尿病에 關한 研究

손等<sup>15)</sup>이 1952年 3月부터 1975年 8月까지 23年 5개월간 國內 6個綜合病院에 入院한 患者 342, 948名을 對象으로 調查한 結果에 의하면 糖尿病患者는 2,881名으로 0.84%의 頻度를 보였고 年度別로 볼때 增加하는 傾向이 있다고 하였다. 김等<sup>16)</sup>

이 1957年에서 1977년까지 20年間 서울대학교병원 糖尿病管理室에 登錄된 患者를 統計 分析한 結果에 의하면 糖尿病患者로 入院·登錄된 總數는 5,601名으로 入院된 全內科患者 352,280名中에서는 1.59%이고 이 期間中 서울大學病院에 登錄된 患者 總數에 대하여는 0.50%를 차지하였으며 年度別로 볼때 全內科患者中에서 發見되는 百分率은 每年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 60年代 초반까지는 0.7~0.8% 미만에 머물던 것이 70年代에는 2.2~2.5% 程度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상승경향은 연도별로 統計的 有意한 差가 있다고 하였다.

###### 2) 農村住民의 糖尿病에 關한 研究

金等<sup>17)</sup>이 全北 沃溝郡의 10歲以上 人口를 무작위 抽出하여 全數 調查한 結果에 의하면 受驗者 15,853名中 尿糖檢査 陽性者는 2.26%이었으며 그中 男子는 3.29%이었고 女子는 1.29%로서 男子가 女子에 比하여 2倍程度 더 높았다.

年齡別로 볼때 10歲에서 19歲群은 0.90%, 20歲에서 39歲群은 4.07%, 40歲에서 59歲群은 6.78%, 60歲以上群은 7.52%이었다.

(尿糖陽性者 358名(2.26%)中에서 250名에 對하여 糖負荷檢査(GTT)를 實施한 結果 101名(全受驗者의 0.91%, GTT檢査者中 40.4%)이 糖尿病으로 判定되었으며 36名(GTT檢査者中 14.4%)이 糖尿病으로 判定되었다.)

###### 3) 農村零細地域 老人들의 健康狀態調查

李等<sup>8)</sup>의 1983年 慶北 寧山群에 있는 60歲以上 老人의 健康檢診結果에 의하면 866名의 老人中에서 貧血이 9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高血壓으로 30.5%이었고, 肺結核 10.3%, 肝疾患 7.9%, 呼吸器疾患 6.7%, 視力障礙 5.9%, 糖尿病 5.5%, 腎疾患 2.9%의 順이어서 老人性疾患中에서 糖尿病도 상당히 높은 比率로 觀察됨을 알 수 있었다. 糖尿病 5.9%中에서 男子는 6.1%, 女子는 5.0%로 亦是 女子에 比하여 男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3. 糖尿病에 對한 知識과 實踐에 關한 研究

###### 1) 糖尿病의 認識度

1982年 吳等<sup>18)</sup>이 大邱市內에 居住하는 住民 910名을 對象으로 糖尿病의 認識度에 對하여 調查하였으며 그中 31名은 (3.4%) 自身이 患者라고 對答하여 이들의 認識度는 一般人들과는 差異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어 除外하고 調査하였다. 原因에 對한 認識度를 보면 「傳染病이 아니다」는 것에 대하여는 70%以上이 알고 있었으나 그外에는 대체로 50%以下의 낮은 正答率을 보였고, 症狀에 對한 知識에는 「전혀 모른다」가 56.9%나 되었으며 合併症에 對한 知識에서는 「皮膚부스럼이 잘 낳지 않는다」 「눈이 나빠진다」가 27.7%이어서 細部的인 合併症知識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治療에 對한 知識은 食餌療法의 必要性은 잘 알고 있었으나 方法論에 있어서는 正確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

## 2) 通院治療 糖尿病患者의 自家調節에 關한 研究

李<sup>19)</sup>가 1983年10月 病院 糖尿病 클리닉 來所者 226名을 對象으로 面接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糖尿病管理의 內容別 知識程度를 보면 發病原因에 對한 正答率이 82.8%이었고 食餌療法中 糖質이 적은 飲食攝取와 食品交換에 對한 正答率은 82.3% 35.0%이었고, 運動療法에 對한 正答率은 71.1%이었고 合併症 發生 可能性에 對한 正答率은 90.8%이었다.

糖尿病疾患管理에 關한 知識 程度를 點數로 計算하면 100點 滿點으로 했을 때 54點이 안되는 경우가 39.0%에 달하여 이에 對한 教育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糖尿病疾患 管理 方法別 實踐 程度는 5段階 評點尺度에 의하여 보았을 때 小便檢査中 두번째 小便檢査方法의 疾病管理 實踐 平均評點은 2.5點이었고, 食餌療法中 食品交換表使用의 疾病管理實踐은 1.88點이었고, 低血糖症勢處置中 飲食調節方法의 疾病管理平均評點은 3.85點이었고, 발看護中 발의 清潔方法의 管理實踐平均評點은 3.48點이었고, 定期檢診內容의 管理實踐平均評點은 4.43點이었고, 糖尿手帖 活用方法의 管理實踐平均評點은 3.89이었다. 이들의 全体 總平均 評點은 3.31點으로 「가끔 施行한다」와 疾病管理實踐 程度는 「자주 施行한다」의 사이에 있어서 疾病管理實踐程度는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疾病管理實踐에 對한 教育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 II. 研究 方法

### A. 研究方法, 研究對象 및 調査期間

本 研究은 1986年 8月 3日부터 1986年 8月 10日 까지 일주일 동안 江南區 大峙1洞, 大峙2洞, 方背洞에 소재한 9個 老人亭에 나오는 60歲以上 老人을 對象으로 設問紙에 의거하여 面接調査 形式으로 資料를 蒐集하였다.

尿糖檢査結果는 녹십자사 제품인 Urine test tape를 사용하여 調査 老人의 食前 1時間前 尿를 採取한 뒤 檢査하여 음성(-) 양성(+, ++, +++)으로 判定하였다.

糖尿病에 對한 知識程度는 맞다. 틀리다. 모른다로 對答하게 하여 正答과 誤答으로 分類 하였고 各各의 內容에 대하여 正答은 1點 誤答은 0點으로 點數化하여 處理하였다.

糖尿病管理實踐程度는 전혀 안한다. 1點, 가끔 한다, 2點, 항상한다. 3點으로 評點 處理하였다.

### B. 資料 分析 方法

일반적 특성 및 기타 모든 문항에 대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으며 各 內容의 比較 分析時  $\chi^2$  test를 하였다.

## III. 調査 結果

### A. 調査老人의 一般의 特性

調査地域은 서울市 江南區의 大峙1洞, 大峙2洞, 方背洞에 있는 9個 老人亭이었으며 그 結果는〈表 1-1〉과 같다.

調査對象老人은 3個洞에 있는 60歲以上 老人亭 登錄老人이었다. 9個 老人亭의 登錄 老人數는 558名 이었고 調査 老人數는 399名 이었다.

〈表 1-1〉 調査地域 老人亭數와 調査老人數

조사지역 내 용	대치1동 No.(%)	대치2동 No.(%)	방배동 No.(%)	합 계 No.(%)
조사 노인정 수	3	3	3	9
노인정등록노인수	188	214	156	558
조사 노인 수	(70.7)	(72.0)	(71.7)	(71.5)

調査 老人數는 大峙 1洞 133名, 大峙 2洞 154名, 方背洞 112名이었다.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을 把握하기 위하여 調査老人의 性別, 年齡, 宗教, 學歷, 結婚狀態, 實際的家長, 月용돈額, 醫療保險受惠 與否를 보았다.

調査老人의 性別特性을 보면 全体399名中에서 男子는 143名인 35.8%, 女子는 256名인 64.2%이어서 女子가 男子보다 1.5배정도 더 많았는데 80년도 우리나라의 60세이상 男女 比率도 40.4%와 59.6%로서 위와 비슷하였다.<sup>20)</sup>

調査老人의 年齡別 特性을 보면 70~79歲群이 55.4%로 가장 많았고 80歲 이상 高齡群도 17.6%나 되었는데 이는 朴等<sup>21)</sup>이 보고한 老人亭 老人의 年齡別 分布도 55.2%, 9.2%로 위와 비슷하였다.

調査老人의 宗教別 特性을 보면 應答者는 353名이었고 그 中에서 宗教가 있다고 對答한 사람은 308名인 77.2%이었고 그 中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주로 있다.

調査老人의 學力別 特性을 보면 國卒以下가 77.

2%이었고, 中卒以上이 22.8%이어서 應答者는 大部分 國卒以下이었다.

調査老人의 結婚狀態別 特性을 보면 死別이 64.4%나 되어서 홀로된 노인이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調査老人의 實際의 家長은 아들, 며느리가 335名인 84.0%로서 주로 아들, 며느리에게 의존하여 生活하고 있었다.

老人들은 家計의 所得水準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間接的 所得水準指標로서 調査老人의 每月 支給 用돈額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調査老人399名中에서 月용돈額에 對한 應答者는 325名인 81.5%이었다. 應答者 325名中에서 3萬원~5萬9千원이 3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다. 이는 朴等<sup>22)</sup>이 全國 老人亭 老人을 對象으로 調査한 경우보다 용돈 支給率은 더 높았고 따라서 調査老人의 生活水準은 中流以上임을 알 수 있었다. 調査老人의 醫療保險受惠別 特性을 보면 保險惠擇이 있는 사람은 75.2% 이었고 保險 惠擇이 없는 사람은 23.6%에 불과했다. 이는 文<sup>23)</sup>이 調査한 保險 惠擇率 34.9% 보다 높아서 이 地域 老人의 保險

〈表 1 - 2〉 調査老人의 一般의 特性

구 분	내 용	남		여		합 계	
		No.	(%)	No.	(%)	No.	(%)
연령	60~69세	37	(25.9)	71	(27.7)	108	(27.0)
	70~79세	83	(58.0)	138	(53.9)	221	(55.4)
	80~89세	22	(15.4)	45	(17.6)	67	(16.8)
	90세이상	1	(0.7)	2	(0.8)	3	(0.8)
학력	문맹	21	(14.6)	147	(57.4)	168	(42.1)
	국해	18	(12.6)	17	(6.4)	35	(8.8)
	국졸	35	(24.5)	70	(27.3)	105	(26.3)
	중졸	29	(20.3)	7	(2.7)	36	(9.0)
	고졸이상	40	(28.0)	15	(5.9)	55	(13.8)
종교	불교	35	(24.5)	102	(39.8)	137	(34.3)
	기독교	24	(16.8)	68	(26.6)	92	(23.1)
	천주교	21	(14.7)	45	(17.6)	66	(16.5)
	기타	13	(9.1)	0	(0.0)	13	(3.3)
	무교	27	(18.9)	18	(7.0)	45	(11.3)
	무응답	23	(16.1)	23	(8.9)	46	(11.5)
합계		143	(100.0)	256	(100.0)	399	(100.0)

〈表 1-3〉 調査老人의 一般의 特性

구분	성 별	남		여		합 계	
		No.	(%)	No.	(%)	No.	(%)
노인정별	대 치 1 동	42	(29.4)	91	(35.5)	133	(33.4)
	대 치 2 동	58	(40.6)	96	(37.5)	154	(38.6)
	방 배 동	43	(30.1)	69	(27.0)	112	(28.1)
결혼상태	사 별	48	(33.6)	209	(81.6)	257	(64.4)
	기 혼	94	(65.7)	38	(14.8)	132	(31.2)
	이 혼 · 별 거	1	( 0.7)	7	( 2.7)	8	( 2.0)
	독 신	0	( 0.0)	2	( 0.8)	2	( 0.5)
실 제 적 가 장	아 들 · 며 느 리	118	(82.5)	219	(85.5)	337	(84.5)
	본 인	20	(14.0)	18	( 7.0)	38	( 9.5)
	사 위 · 딸	3	( 2.1)	15	( 5.9)	18	( 4.5)
	기 타	2	( 1.4)	4	( 1.6)	6	( 1.5)
월용돈액	천원~2만9천원	21	(14.7)	73	(28.5)	94	(23.6)
	3만원~5만9천원	50	( 3.5)	100	(39.1)	150	(37.6)
	6만원~8만9천원	9	( 6.3)	5	( 2.0)	14	( 3.5)
	9만원 이 상	42	(29.4)	25	( 9.8)	67	(16.8)
	무 응 답	21	(14.7)	53	(20.7)	74	(18.5)
의료보험 수혜여부	보 험	106	(74.1)	196	(76.6)	302	(75.7)
	일 반(비 보험)	36	(25.2)	58	(22.7)	94	(23.6)
	보 호	1	( 0.7)	2	( 0.8)	3	( 0.8)
합	계	143	(100.0)	256	(100.0)	399	(100.0)

受患率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B. 調査老人의 糖尿病 罹患 程度**

調査老人의 糖尿病 罹患 程度를 보기 위하여 糖尿病에 대한 自覺症狀과 糖尿病 診斷 經驗 與否를 設問으로 조사하였고 尿糖檢査를 실시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糖尿病에 대한 自覺 症狀 出現 程度**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自覺症狀 出現 程度는 〈表 2-1〉과 같다.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自覺증상은 「소변양이 많다」가 9.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물을 많이 먹는다」가 5.0% 이었고 「손발이 저리다」는 4.5%, 「현훈(눈앞이 어긋나는 증상)이 있다」 4.0%, 「체중 감소가 있다」 3.8%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등<sup>\*)</sup>이 糖尿病 患者를 대상으로한 조사보고서에서 「소변양 과다」는 48.7% 「물을 많이 먹는다」는 43.0%, 「손발이 저리

〈表 2-1〉 糖尿病에 대한 自覺症狀

내 용	성 별		합 계	
	여 (N=256)	남 (N=143)	N=399	
	%	%	No.	(%)
소변양이 많다	9.0	9.1	36	(9.0)
물을 많이 먹는다	5.9	3.5	20	(5.0)
손발이 저리다	2.7	7.7	18	(4.5)
현훈이 있다	3.5	4.9	16	(4.0)
체중 감소가 있다.	5.0	1.4	15	(3.8)

다」7.6%, 「현훈이 있다」 8.9%, 「체중 감소가 있다」 12.7%로서 本研究結果와는 차가 있었다. 이것은 本研究는 결보기에 健康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체 調査 老人을 對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病이 進展된 患者群의 症狀出現 程度와는 차이가 있다고 解釋된다. 따라서 本 調査의 結果는 糖尿病에 罹患되어 病으로 進展되고 있으나 治療

(表 2-2) 本人의 糖尿病 認識 與否

내 용	남		여		합 계	
	No.	(%)	No.	(%)	No.	(%)
당뇨병이 있다	8	( 5.6)	11	( 4.3)	19	( 4.8)
당뇨병이 없다	135	(94.4)	245	(95.7)	380	(95.2)
합 계	143	(100.0)	256	(100.0)	399	(100.0)

P>0.05

가 放置되고 있는 狀態로서 老人保健事業에서 觀心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2. 糖尿病 罹患診斷 經驗與否

### 1) 本人의 糖尿病 認識 程度

本人이 糖尿病이 있는지에 대한 認識 與否를 보기 위하여 糖尿病임을 診斷받은 적이 있는지를 본 結果는 (表 2-2)와 같다.

本人이 糖尿病임을 認識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399名中에서 19名인 4.8%이었다. 이는 吳等<sup>18)</sup>이 대구시 全住民을 對象으로 調查報告한 3.4% 보다 약간 더 높았는데 이는 老人年齡群의 糖尿病 出現率이 全年齡群의 糖尿病 出現率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 2) 性別 糖尿病 認識 程度

糖尿病 罹患診斷 經驗 與否를 性別로 보면 (表 2-2)와 같다.

本人이 糖尿病임을 認識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男子老人은 5.6% 女子老人은 4.3%로서 男子老人이 女子老人 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는 李等<sup>19)</sup>이 農村地域 零細老人을 對象으로 調查報告한 境遇의 男子 6.1%, 女子 5.0%와 比較할 때 男子老人이 女子老人보다 더 높다는데에 一致 하였으며 國內의 糖尿病 有病率에 대한 報告에서 孫等<sup>20)</sup>은 1.9:1, 尹等<sup>21)</sup>은 1.85:1, 金等<sup>22)</sup>은 1.74:1이라고한 境遇에서도 男子가 높다는데에 一致 하였다.

## 3. 尿糖檢査 結果

調查 老人의 尿糖檢出 有無를 把握하기 爲하여 溺室자사 제품인 Urine test tape에 의하여 尿糖에 대한 選別檢査를 하였다. 本 研究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尿糖陽性率

調查 老人 399名中 尿糖檢査에 應한 사람 360名에 대한 尿糖陽性率은 (表 3-1)과 같다.

尿糖檢査에 應한 360名中에서 尿糖 陽性인 사람

은 35名인 9.7%이었다. 이는 金等<sup>23)</sup>이 10歲以上된 農村住民을 對象으로 調查한 報告에서의 2.26% 보다 훨씬 높아서 老人人口의 尿糖 陽性率이 10歲以上群 보다는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金等<sup>23)</sup>의 報告에서의 60歲以上群의 7.52%와는 거의 비슷한 結果를 보이고 있었다.

尿糖 陽性인 35名中에서 (+)는 14名이었고(++)는 12名, (+++)는 9名이었다. 그러나 崔等<sup>24)</sup>이 研究한 糖尿病患者의 血糖 및 尿糖과의 不一致率을 보면 血糖치 150~200mg/100ml 범위에서는 81.8%, 200mg/100ml 이상인 경우에는 18.8%라는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本 研究의 尿糖 陽性率을 糖尿病 有病率로 생각하는데에는 무리가 있게된다.

따라서 尿糖 檢査 結果 陽性으로 나온 경우는 임상검사등의 方法에 의하여 確診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식이요법등의 적절한 治療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 2) 性別 尿糖 陽性率

尿糖 陽性率을 男女 性別로 差異가 있으나 區別하여본 結果는 (表 3-1)과 같다. 男子의 尿糖 陽性率은 16.0%이고 女子의 尿糖陽性率은 6.6% 이었다. 이 結果는 金等<sup>23)</sup>이 보고한 男子 3.29%, 女子 1.29%의 경우와 같이 男子의 尿糖陽性率이 女子보다 더 높다는 것에 일치하였다. 男子老人이 女子老人보다 糖尿病 罹患頻도가 높은 原因에 대한 定說은 아직까지 없으나 이것은 糖尿病의 發病原因 糾明이 아직도 안된것과 같이 說明될 수 있다.

다만 重要한 事實은 男子의 境遇 早期發見을 爲한 努力과 豫防的 健康管理에 보다 重點을 두도록 하는 保健教育의 必要性이 크다고 하겠다.

4. 尿糖檢査 結果와 糖尿病認識 與否와의 關係  
尿糖檢査結果와 本人의 糖尿病 認識 與否와의 關係는 (表 3-2)와 같다.

〈表 3-1〉 尿糖 檢査 結果

노당검사결과	성 별	남		여		합 계	
		No.	(%)	No.	(%)	No.	(%)
음 성	—	100	( 84.0)	225	( 93.4)	325	( 90.3)
	+	19	( 16.0)	16	( 6.6)	35	( 9.7)
양 성	+	8	( 42.1)	6	( 37.5)	14	( 40.0)
	++	8	( 42.1)	4	( 25.0)	12	( 34.3)
	+++	3	( 15.8)	6	( 37.5)	9	( 25.9)
합	계	119	(100.0)	241	(100.0)	360	(100.0)

P > 0.05

이는 4群으로 分類가 可能하였다.

① 尿糖 檢査에 應한 360名中에서 本人은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尿糖 陰性인 경우는 6名인 1.7%이었다.

② 糖尿病이 있다고 對答했으며 尿糖이 陽性인 경우는 13名인 3.6%이었다.

③ 糖尿病이 없다고 對答했으며 尿糖 陰性인 경우는 319名인 88.6%이었다.

④ 糖尿病이 없다고 對答했으나 尿糖 陽性인 경우는 22名인 6.1%이었다.

따라서 本人은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조사 당시 尿糖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1.7% 이었고 本人은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모르는 中에 尿糖이 나오는 경우가 6.1%나 되었다.

따라서 本人의 糖尿病 有無에 대한 認識 與否와 尿糖檢査 結果와의 一致性 與否를 보기 위하여 敏 感度(sensitivity), 特異度(specificity)의 概念을 도

입하여 이 研究에 적용하여 본 結果는(註)와 같다.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中에서 尿糖檢査 結果와의 一致率은 68.4%이었고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 中에서 尿糖檢査 結果와의 一致率은 93.5%이었다. 따라서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尿糖檢査 結果에서의 一致率은 더 낮았다.

$$\text{Sensitivity} = \frac{\text{노당 양성자 수(B)}}{\text{당뇨병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수 (A+B)}}$$

$$\times 100 = \frac{13}{19} \times 100 = 68.4$$

$$\text{Specificity} = \frac{\text{노당 음성자 수(D)}}{\text{당뇨병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수 (C+D)}}$$

$$\times 100 = \frac{319}{341} \times 100 = 93.5$$

〈表 3-2〉 本人의 糖尿病 認識如否와 尿糖檢査 結果와의 關係

노당검사결과	糖尿病 認識 如否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이 없다		합 계	
		No.	(%)	No.	(%)	No.	(%)
음 성	—	6	( 1.7)	319	(88.6)	325	(90.3)
	+	13	( 3.6)	22	( 6.1)	35	( 9.7)
양 성	+	4	(30.8)	10	(45.5)	14	(40.3)
	++	4	(30.8)	8	(36.4)	12	(34.3)
	+++	5	(38.4)	4	(18.1)	9	(25.9)
합	계	19	( 5.3)	341	(94.7)	360	(100.0)

〈註〉 A : 당뇨병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노당 음성인 경우  
 B : 당뇨병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노당 양성인 경우  
 C : 당뇨병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노당 양성인 경우  
 D : 당뇨병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노당 음성인 경우



C.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

調査老人 399名 중에서 尿糖 検査에 不應한 39名을 除外한 360名에 대하여 糖尿病에 대한 知識程度를 알아 본 結果는 <表 5-1, 5-2, 5-3>과 같다. 糖尿病에 대한 原因, 症狀, 治療, 合併症에 관한 6개 문항을 주고 각 문항에 대한 大답을 정답과 오답으로 分類處理 하였고 正答에 대하여는 各各 1點씩 配點 하였다.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를 各 内容別, 本人의 糖尿病에 대한 認識 有無群別, 尿糖有無群別, 尿糖檢出 및 糖尿病 認識群別로 比較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을 測定한 結果는 <表 5-1>과 같다.

「糖尿病症狀에는 渴症, 小便量過多가 있다」의

正答率은 50.8%로 제일 높았다. 그러나 이는 韓等<sup>28)</sup>의 93% 보다는 낮아서 調査老人은 스스로 糖尿病에 대한 早期症狀의 發見 및 管理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糖尿病의 合併症에는 視力障礙와 末梢神經炎이 있다」는 内容의 正答率은 32.2%로 낮았다. 이는 李<sup>29)</sup>의 90.8%, 韓等<sup>28)</sup>의 70.7%보다 낮아서 調査老人의 合併症 발생에 대한 예방, 관리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合併症에 대한 教育이 必要하다고 判斷된다. 食餌療法에 관한 内容중에서 「쌀밥은 糖尿病에 나쁘나 보리밥은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것은 2.2%로 正答率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李<sup>29)</sup>의 82.5%, 35.5%보다 훨씬 낮았으며 金<sup>30)</sup>의 7.6%보다도 더 낮았다. 따라서 調査老人은 쌀밥이 나쁘다는 것만 막연히 알 뿐 食事의 종류, 食分量, 食品교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食餌療法 특히 食品교환에 대한 教育

<表 5-1> 糖尿病에 대한 知識 正答率

구분	내 용	당뇨병有無응답여부	당뇨병이 있다고 응답함	당뇨병이 없다고 응답함	합 계 (N = 360) 정답자수 (정답율)
		(N = 19) %	(N = 341) %		
원 인	인슐린 부족	42.1	10.3		43 (11.9)
증 상	갈증, 소변양 과다	47.4	51.0		183 (50.8)
치 료	식이 요법	5.3	2.0		8 (2.2)
치 료	운동 요법	57.9	36.4		135 (37.5)
치 료	인슐린 요법	15.8	1.2		7 (1.9)
합병증	시력장애, 말초신경염	57.9	10.8		116 (32.2)
평 균 점 수		2.3	1.4		1.4

<表 5-2> 糖尿病에 대한 知識 正答率

구분	내 용	노당有無	노당 양성群	노당 음성群	합 계 (N = 360) 정답자수 (정답율)
		(N = 35) %	(N = 325) %		
원 인	인슐린 부족	20.0	11.1		43 (11.9)
증 상	갈증, 소변양 과다	48.6	51.1		183 (50.8)
치 료	식이요법	2.9	2.2		8 (2.2)
치 료	운동요법	5.7	35.8		135 (37.5)
치 료	인슐린 요법	5.7	1.5		7 (1.9)
합병증	시력장애, 말초신경염	37.1	31.7		116 (32.2)
평 균 점 수		1.7	1.3		1.4

이 매우 必要하다고 解釋된다. 지금까지의 結果에서 調査老人들의 6個 問項에 대한 正答率은 50%가 넘는 境遇가 거의 없었으며 全体 調査老人의 平均點數는 1.4點으로 6個 問項中에서 1問題半 程度밖에는 맞지 못하였다. 따라서 糖療病에 대한 知識程度는 매우 낮았다.

2. 本人의 糖尿病 認識 與否別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

本人의 糖尿病 認識有無群別 糖尿病 知識程度를 보면 (表 5-1)과 같다.

全体 6個 内容中에서 症狀에 대한 内容을 除外한 모든 内容의 糖尿病에 대한 正答率은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正答率이 높았다.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19名의 平均 正答 點數는 2.3點이었고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한 341名은 1.4點이어서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平均 1問題 程度 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19名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을 韓等<sup>20)</sup>이 調査한 慶北 大學病院 糖尿診察室을 訪問한 全年齡群 患者의 糖尿病에 대한 正答率과 比較해 보면 本研究에서는 原因에 대한 正答率은 42.1%, 症狀 47.4%, 治療中 食餌療法 5.3%, 合併症 57.9%이었으나 韓等<sup>20)</sup>의 研究에서는 50%, 93%, 7.7%, 70.7%로서 本研究의 正答率이 韓等<sup>20)</sup>의 研究보다 낮았다. 따라서 調査老人中에서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糖尿病

에 대한 知識은 낮은 편이었으므로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뿐만 아니라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을 增進시키기 위한 教育이 必要하다.

3. 尿糖檢出有無別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  
 調査老人中에서 尿糖檢出有無群別 糖尿病에 대한 知識 正答率은 (表 5-2)와 같다.

전체 6個 内容中에서 尿糖陽性者의 正答率이 尿糖陰性者 보다 더 높았다.

尿糖陽性者의 全体 平均 正答 點數는 1.7點이었고 尿糖陰性者는 1.3點 이어서 尿糖陽性者의 平均 正答點數가 尿糖陰性者보다 0.4點 더 높아서 尿糖이 나오고 있는 사람의 知識 程度가 尿糖이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尿糖陽性群의 知識 正答率은 韓等<sup>20)</sup>의 研究보다도 더 낮았는데 이는 調査老人 中에서 正答率이 높다고 하는 尿糖 陽性群도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가 높은편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正答率이 낮은 尿糖陰性者뿐만 아니라 尿糖陽性者도 糖尿病에 대한 教育의 必要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糖尿檢出 및 糖尿病認識 有無群別 糖尿病에 대한 知識程度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程度를 앞에서 分類한 尿糖 檢出 및 糖尿病 認識 有無群別로 구분한 A群, B群, C群, D群에 따라 比較한 結果는 (表 5-3)과 같다.

(表 5-3) 糖尿病에 대한 知識 正答率

구 분	내 용	A 군 (N= 6)	B 군 (N= 13)	C 군 (N= 33)	D 군 (N= 319)	합 계 (N= 360)	
		%	%	%	%	정답자수	(정답율)
원 인	인슐린 부족	33.3	46.2	4.5	10.7	43	(11.9)
증 상	갈증 소변양 과다	50.0	46.2	50.0	51.1	183	(50.8)
치 료	식이요법	0.0	7.7	0.0	2.2	8	( 2.2)
치 료	운동요법	33.3	69.2	50.0	35.4	135	(37.5)
치 료	인슐린 요법	16.7	5.4	0.0	1.3	7	( 1.9)
합병증	시력장애, 말초신경염	50.0	61.5	22.7	31.3	116	(32.2)
평 균 점 수		1.8	2.5	1.3	1.3	1.4	

평균 점수 환산 백분율  
 A군: 당뇨병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뇨당 음성인 경우  
 B군: 당뇨병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뇨당 양성인 경우  
 C군: 당뇨병 없다고 대답했으나 뇨당 양성인 경우  
 D군: 당뇨병 없다고 대답했으며 뇨당 음성인 경우

糖尿病에 대한 정답률을 보면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했고 尿糖陽性」인 A群은 전체 6個 內容의 정답률이 50%이하로 낮은 편이었고 그중에서 식이요법과 인슐린요법 內容의 정답률이 특히 더 낮았다. 따라서 A群은 糖尿病에 대한 知識을 增進시키기 위한 教育이 必要하였으며 그 중에서 식이요법과 인슐린요법에 대한 教育을 실시하여 계속 尿糖이 나오지 않게 할 必要가 있었다.

A群은 6個 內容 모두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하고 尿糖도 陽性인 B群보다 정답률이 낮았으나 인슐린요법 內容은 A群이 B群보다 정답률이 약간 더 높았다. 그러나 이 結果의 표本수가 적기 때문에 A群이 B群 보다 인슐린을 맞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말 할 수 없었다.

B群은 4個群 중에서 各 內容別 정답률은 가장 높았으나 韓等<sup>24)</sup>의 연구 結果 보다는 정답률이 낮았고 그중에서 食餌療法과 인슐린療法에 대하여는 10%이하로 낮았다. 따라서 B群도 食餌療法 인슐린療法에 대한 教育이 특히 必要하였다.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한 C群, D群은 4個群 中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고 특히 糖尿病의 原因, 食餌療法, 인슐린療法 內容에 대하여는 15%이하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C群, D群도 糖尿病에 대한 教育이 必要하였으며 C群은 尿糖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D群은 糖尿病을 예방하기 위하여 糖尿病의 原因과 食餌療法, 인슐린療法에 대한 重點적 教育이 必要하다.

#### D. 糖尿病에 대한 疾病管理 狀態

糖尿病이 있다고 對答한 19名(앞에서의 A, B, 群)의 疾病管理 狀態는 <表 6-1>과 같다.

疾病管理 狀態를 보기 위하여 8個 項目을 주고 各 項目에 대하여 疾病管理實踐程度를 「전혀 안한다」, 「가끔한다」, 「항상한다」로 대답하게 하였고 疾病管理實踐 程度에 따라서 評點 處理하였다.

##### 1. 疾病管理 實踐 程度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19名の 疾病管理 實踐 平均評點을 보면 全体 平均 評點은 1.6點으로 「전혀 안한다」와 「가끔한다」의 中間程度의 管理實踐 程度를 보였다. 이는 李<sup>18)</sup>가 調査한 結果에서 管理 實踐程度를 5段階(전혀 시행하지 않는다. 드물게

시행한다. 가끔시행한다. 자주시행한다. 항상시행한다)로 分類했을 때 平均 評點은 3.31點으로 「가끔 施行한다」와 「자주 施行한다」의 사이에 있다고 한 例보다는 調査老人의 疾病管理 實踐 程度가 낮은 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各 項目의 疾病管理 實踐 內容別 19名の 疾病管理 實踐 程度를 보면 食事管理內容에 대하여는 「전혀 안한다」가 63.2%로 가장 많았고 平均評點은 1.5로 낮았다.

李<sup>18)</sup>도 食品交換表 使用이 매우 낮다고 하였고 Nickersan<sup>25)</sup>도 31.3%가 食餌療法이 힘들다고 하였듯이 食餌療法에 대한 實踐的 教育이 매우 必要함을 나타내고 있다.

規則的 運動項目에 대하여는 「전혀 안한다」15.8%, 「가끔한다」74.4%, 「항상한다」36.8%이고 平均評點은 2.1點으로 實踐程度는 8個項目中에서는 가장 높았고 比較的 實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尿糖檢査項目에서는 「一定한 時間에 두 번째 小便으로 檢査를 施行하지 않은 경우」가 52.6%나 되었으며 平均評點은 1.5點으로 매우 낮았다. 李<sup>18)</sup>는 「두번째 小便으로 檢査하지 않은 경우」가 59.3%이고 平均評點은 2.05點으로 小便檢査의 正確性이 없다고 했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小便檢査를 正確하게 하도록 教育을 할 必要가 있었다.

발(足) 看護는 「전혀 施行하지 않은 경우」가 63.2%이고 平均評點이 1.6點으로 낮았다. 이는 李<sup>18)</sup> 金<sup>21)</sup>의 18.1%, 49.2%보다 훨씬 施行하지 않는 比率이 높기 때문에 管理實踐에 대한 教育이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低血糖症勢 處置에 대하여는 症勢가 나타났을 때 「전혀 施行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68.4%였고 平均評點은 1.4로 매우 낮았다. 이는 李<sup>18)</sup>의 25.2%보다는 施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低血糖 Shock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危險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低血糖 症勢 處置에 대한 教育이 必要하였다.

定期的診察에 대하여는 「전혀 施行하지 않은 경우」가 47.4%이었고 平均評點은 1.7點이었다. 이는 李<sup>18)</sup>가 調査한 2.7%, 4.34%에 比較해 볼 때 病院에 가지 않는 率도 훨씬 높았다. 따라서 調査老人

은 定期的 檢診의 重要性을 모르고 있거나 經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糖尿手帖 持參에 대하여는 전혀 施行하지 않는 경우가 68.4%나 되었고 平均評點은 1.6이었다. 이는 李<sup>1)</sup>가 調査한 18.6%, 3.89點과 比較해 보건대 糖尿手帖을 持參하지 않는 경우도 本 調査老人이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糖尿手帖을 持參하게 하여 應急時에 患者임을 確認하게 하고 빠른 處置를 하게 할 必要性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結果에서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한 全体 19名의 總平均評點은 1.6點으로 疾病管理實踐程度는 「전혀 안한다」와 「가끔한다」의 中間程度로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疾病管理實踐程度를 높이기 위한 教育이 必要하다고 말할 수 있다. <表 6-1>을 圖表化한 것이 <表 6-2>이며 대체로 1.4點과 2.1點 사이에 있어서 實踐程度가 낮음을 알 수가 있다.

<表 6-1> 本人의 糖尿病 認識群의 疾病管理 實踐程度

실천정도	전혀안한다 (1점) %	가끔한다 (2점) %	항상한다 (3점) %	평균평점
식사관리	63.2	21.1	15.8	1.5
규칙적운동	15.8	47.4	36.8	2.1
노당검사	52.6	36.8	10.5	1.5
발간호	63.2	15.8	21.1	1.6
저혈당증세처리	68.4	26.3	5.3	1.4
정기적진찰	47.4	31.6	21.1	1.7
당뇨수첩지참	68.4	21.1	10.5	1.4
전 체 평 균 평 점				1.6

<表 6-2> 疾病管理 實踐內容別 平均評點

실천정도	1 점	2 점	3 점
식사관리		1.5	
규칙적운동			2.1
노당검사	1.5		
발간호			1.6
저혈당증세처리	1.4		
정기적진찰			1.7
당뇨수첩지참	1.4		

## IV. 結 論

本 研究는 糖尿病의 豫防 및 管理教育을 위한 基礎資料提示를 目的으로 糖尿病 罹度 程度와 糖尿病에 대한 知識 및 疾病管理 狀態를 把握하였다.

本 研究는 서울시 강남구의 60세 이상된 老人亭 老人을 對象으로 86年 8月 3日부터 86年 8月 10日까지 1주일동안 훈련된 요원에 의하여 設問紙에 의거하여 面接調査하여 資料를 수집하였다.

本 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 A. 調査老人의 一般의特性

1. 調査老人數는 399名이었고 399名中 大峙 1동 133名, 大峙 2洞 154名, 方背洞 112名이었다. 調査老人 399名中 男子는 143名, 女子는 256名이었다.

2. 年齡別로는 70~79歲가 가장 많았다.

3. 學力別로는 國卒以下가 77.2%이어서 大部分을 차지 하였다.

4. 實際的 家長은 아들·며느리가 가장 많았다. 月용돈額은 3萬원에서 5萬9千원이 37.6%이었고, 이는 全國老人亭 老人의 용돈과 比較할 때 높은 額數였다.

5. 醫療保險受惠 與否에서는 保險이 75.7%로 높은 受惠率을 나타내었다.

### B.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研究結果

1. 本人이 糖尿病이 있다고 對答한 사람은 全体 399名中 19名이었다. 이들의 男女比率은 男子는 143名中 5.6%, 女子는 256名中 4.3%로 男子比率이 높았다.

2. 尿糖檢査에 不應한 사람은 39名이었고 尿糖檢査에 應한 360名中에서 尿糖陽性인 者는 35名이었다. 尿糖 陽性者 35名 中에서 +는 14名, ++는 12名, +++는 9名이었다.

3. 本人의 糖尿病 有無 認識 與否와 尿糖檢査 結果와의 關係에서는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尿糖陰性인 경우가 6名인 1.7%, 糖尿病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尿糖陽性인 경우가 13名인 3.6%,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했으나 尿糖陽性인 경우가 22名 6.1%, 糖尿病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尿糖陰性인 경우는 319名인 88.6%이었다. 本人의 糖尿病

認識 與否와 尿糖檢査結果와의 一致與否를 보면 尿糖陽性 一致率이 68.4% 尿糖陰性 一致率이 93.5%로서 尿糖陰性인 경우가 尿糖 陽性인 경우보다 一致率이 더 높았다.

4. 性別 尿糖檢査와의 關係를 보면 尿糖 陽性率에서는 男子는 119名中 16.0%, 女子는 241名中 6.0%로 男子의 尿糖 陽性率이 女子의 尿糖 陽性率보다 높았다.

5. 調査老人의 糖尿病에 대한 知識 程度를 보면 全体 知識 平均評點은 1.4點으로 매우 낮았다.

各 問項 內容別로 知識 程度를 보면 症狀과 運動療法에 관한 正答率이 各各 50.8%, 37.5%로 그 중 높은 편이었으며 食餌療法과 인슐린療法 項目에 대한 知識 正答率이 2.2%, 1.9%로 가장 낮았다.

6. 本人이 糖尿病이 있다고 應答한 老人群의 知識 平均評點은 2.3點 本人은 糖尿病이 없다고 應答한 老人群의 知識 平均評點은 1.4點으로 本人이 糖尿病이 있다고 應答한 사람이 없다고 應答한 사람보다 知識 平均評點은 더 높았다. 尿糖 陽性者가 尿糖 陰性者보다 知識 平均評點이 더 높았다.

7. 本人이 糖尿病이 있다고 應答한 19名의 全体 疾病管理實踐 平均評點은 1.5點으로, 「전혀 안 한다」와 「가끔 한다」의 中間에 있었고 疾病管理實踐 平均評點은 매우 낮았다.

## V. 參考文獻

1. 韓國人口保健研究所: 가족보건사업 참고자료: 1986.
2. 박진숙: 직장의료보험 대상자중 노령인구의 질환 및 진료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3. 尹鍾周: 老年化에 관한 人口學的 考察, 한국노년학 5: 46-53, 1985.
4. 윤창남, 徐龍烈, 白正敏, 李大淵: 당뇨병의 임상적고찰, 대한내과학회잡지 19(8): 689-697, 1976.
5. 박정의, 안희권, 서순규, 이영우, 이명목: 우리나라 15個 綜合病院을 對象으로 調査한 擴張性心筋症의 臨床研究, 순환기 16(2): 243-253, 1986.
6. 황정운, 김응진: 당뇨병의 역학적연구, 당뇨병 2(1): 27-31, 1974.
7. 김응진: 당뇨병학, 일조각: 7-11, 1976.
8. 李性寬, 徐錫權: 農村地域 零細老人들의 健康狀態 調査, 한국노년학 5: 27-35, 1985.
9. 민병석: 당뇨병은 치유될 것인가, 당뇨병 7(1): 1-3, 1977.
10. ALan L.Graber and Barbara G.Cristan: Evaluation of Diabetes Patient education program, Diabetes 26(1): 61-64, 1977.
11. Marget M. Martin: A teaching center for Diabetes, A. J. N 58(3): 390-391, 1958.
12. 최영길: 당뇨병의, 병인, 분류 및 진단 기준, 대한의학협회지 29(4): 356-361, 1986.
13. 민병석: 당뇨병은 치유될 것인가, 당뇨병 7(1): 1-3, 1977.
14. Markku Laakso, Kelvi Pyörälä: Age of Onset and type of Diabetes, Diabetes Care 8(2): 114-117, 1985.
15. A. J. N 58(3): 390-391, 1958.
16. 손성국, 한덕호, 허갑범, 이상용: 한국에 있어서의 당뇨병의 통계적 관찰, 당뇨병 3(1): 43-49, 1976.
17. 김응진, 이홍규, 최수봉, 김영진: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적 연구(v), 당뇨병 5(1): 25-32, 1976.
18. 金康凝, 崔춘호, 李途榮, 金應振: 우리나라 農村住民의 糖尿病에 관한 疫學的 研究, 당뇨병 1(1): 17-24, 1972.
19. 吳龍龜, 金利英, 馬潤慶, 金普完, 尹榮估: 당뇨병의 인식도, 당뇨병 7(1): 71-76, 1977.
20. 李明淑: 通院治療 糖尿病患者의 自家調節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4.
21. 경제기획원: 한국인구조사보고서, 1980.
22. 朴在佩, 李貞淑, 金兒玄: 老人餘暇施設 및 그 프로그램에 관한 調査研究 報告書, 노인문제연구소.
23. 文玉綸: 21世紀의 老人問題와 醫療保險, 한국노년학 5: 83-93, 1985.
24. 이태희, 박승조, 이찬현: 당뇨병의 임상적 연구, 대한내과학회잡지 16(8): 497-500, 1973.
25. 尹榮吉: 糖尿病의 臨床的 研究, 경북의대잡지 13: 397, 1972.
26. 최규태, 최인섭, 강성기: 당뇨병 환자에게서 혈당 및 뇨당과의 관계, 糖尿病 6(1): 5-7, 1976.
27. 韓京勳, 柳三連, 尹榮估: 糖尿病의 認識度, 당뇨병 5: 17-24, 1979.
28. 김완순: 당뇨병 환자의 자가조절의 지식 및 태도 조사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29. Donna Nikenson: Teaching the Hospitalized Diabetic, A. J. N 72(5): 935-938, 1972.

29. 서정희, 박정환, 이성관: 노인들의 기동 부자유 및 만성병 이환실태, 한국노년학 (3): 41-51, 1983.
30. 차봉연, 한석원, 윤연석, 이광우: Reflometer에 의한 혈당 측정 및 가정 혈당 조절법에 대한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인식도에 관한 고찰, 당뇨병 9 (2): 205-209, 1985.
31. 朴兪昱, 尹榮佶: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 전후의 Glycosylated hemoglobin치의 변화, 당뇨병 6 (1): 9-13, 1976.
32. Eung Jin Kim, Kyung Sik Kim, Tae Hee Lee: The incidence of Diabetes Mellitus in Urban and Rural Population in Korea, 함춘내과 7(1), 1976.
33. 李東模: 糖尿病 罹患實態調査, 인간과학 5(7): 11-17, 1981.
34. 전동희: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28(1): 79-83, 1975.
35. 金穆鉉: 당뇨병의 합병증, 대한의학 협회지 29(4): 362-373, 1986.
36. 최영길: 당뇨병의 발생기전, 당뇨병 2(1), 1974.
37. 이대순: 일부 군 병사들의 성병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의학 38(3): 187-194, 1980.
38. Julia D. Watkins & T. Franklin Williams: A study of Diabetic patients at home, A. J. P. H. 57(3): 452-457, 1967.
39. Lisa M. Trayser: A teaching program for Diabetics, A. J. N. 73(1): 90-93, 1973.
40. George E. Hess, Wayne K. Davis: The validation of a Diabetes patient knowledge test, diabetes Care 6(6): 591-596, 1983.
41. Lee N. Hanuschak, Theodore G. Duncan: why having older Diabetics self monitor blood sugars pays off, Geriatrics 40(10): 91-97, 1985.
42. Boy N. Collier and Donnel D. Etwiler: Comparative study of Diabetes knowledge among Juvenile Diabetics and their parents, diabetes 20(1): 51-57, 1971.
43. Adom Dora and Wright Alice Santiago: D-issonance in Nurse and patient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patient teaching program, Nursing outlook: 132-136, 1982.

## ABSTRACT

### A Survey Study on Occurance Rate, Knowledge and Self-care Behavior of diabetes for the Elderly who are Attending a Villa House for the Aged.

Kook Hee Ro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ung Huh)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age 60years over who are attending a villa house for the aged during day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occurrence rate of Diabetes by self cognitiveness about their disease of Diabetes; by result of urine test tape test and a questionnaire study and self-care behavior about Diabet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The population studied consisted of 143 males and 256 females comprising 73.9% of the total population registered at the elderly villa house at the time of the study.

The mean age group of the study was 70-79 years; educational level 77.2% was below than primary education.

#### 2. The results of Diabetes study.

The number of cases who were self-recognized about their Diabetes were 19; 8 males and 11 females.

The number of urine sugar positive cases was 35; 19 males and 16 females.

The consistency rate of positive urine sugar test was 93.5%

An average degree of the results of knowledge test about Diabetes was 1.4 point.

When the correct 1 item was given 1 point for the 6 item of questions.

Among 19 cases of self-recognized disease group an average degree of the knowledge test results was 2.3 point and among the 35 cases of the urine test positive group an average degree of the knowledge test results was 1.7 point.

The average degree of self-care behavior about Diabetes was 1.6 point when measured 3 point scale on the self-care behavior for the 7 item of questions.